

한국전쟁기 한문독본 연구*

- 『常用漢字讀本』을 중심으로

이순욱** · 임주탁***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常用漢字讀本』의 매체 특성과 국 |
| 2.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
과 성격 | 가주의
4.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을 고찰하고 국어과 한문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재로 사용된 『常用漢字讀本』의 매체 특성과 독본에 갖는 국가주의 담론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전쟁기에 간행된 다양한 한문독본의 매체 기반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제도와 한문독본의 관련성, 한문독본과 국가주의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한문독본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기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전시문교행정의 방침에 부응하여 광복기부터 발행되어 오던 다양한 종류의 한문독본이 생산·재생되면서 폭넓게 유통되었다. 문교부의 상용한자는 곧 교육용 한자였으며, 언어생활에서 한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한문독본은 한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필수 매체로 기능하였다. 그런 까닭에 문교부 인사의 ‘추천’이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재들이 거듭 제작·출판되는 것은 자유스러운 현상이었다. 이 시기 글쓴이가 확인가 한문독본은 6종 19책에 이르렀으며, 전중기(戰中期) 동안 판을 거듭하면서 발행되었다. 이 독본들은 다소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전시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수용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전쟁기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생활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常用漢字讀本』 1~3의 매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독본은 전통적인 한문교육의 성격을 넘어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학습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훈련의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1951년 3월 발간된 전시독본의 편찬 의도와 내용 등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전시 국민의 의무나 국군 위문, 승전의지의 고취, 국가재건의 방향 모색 등 당대 긴급 현안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서사와 설명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은 이 시기의 다른 한문독본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 ‘연습문제’를 각 단원마다 두어 한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常用漢字讀本』를 통해 전시 교육과정에서 한문독본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과 당시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 그리고 한문독본의 존재방식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한국전쟁, 독본, 한문독본, 常用漢字讀本, 국어교육, 국가주의

1. 들머리

이 글은 그동안 연구영역에서 배제되었던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을 고찰하고, 『常用漢字讀本』을 대상으로 전시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기 교육은 국가주의의 기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까닭에 삶의 자잘한 일상에서부터 학교사회에까지 새로운 문화전선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시독본을 비롯하여 각급학교에서 부독본으로 사용된 독본의 생산과 재생산, 유통과 향유는 전시문화의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¹⁾ 두루 알다시피 근대 이후 공식적인 교과서의 형태로 존재했던 독본(讀本)은 제도교육의 안팎에서 생산된 모범적인 읽기 교재의 일종이다. 그것은 발간주체의 의도와 시각에 따라 다양한 체제와 형식을 띠고 있으며, 내용 구성에서도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적절하게 반영한 텍스트로 기능하였다. 이제껏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다양한 종류의 정훈독본이나 문학독본, 한문독본 등에 대해서는 발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전시독본과 문학독본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²⁾ 전시 국어교육의 실체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한국문학회, 2011, 425쪽.

2) 이순욱, 위의 논문, 423-452쪽;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전화 과정』, 『한국 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219-243쪽; 박용찬, 『한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주의 시선으로의 이동』,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223-253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한국문학논총』 제66집, 한국문학회, 2014, 361-391쪽.

그러나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매체 기반, 체재와 성격을 밝힌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신학제수립기 이후 발간주체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생산된 한문독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나라잃은시대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³⁾ 자료 망실과 유실에 따른 자연스런 연구 경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문독본에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까닭은 문학독본과 달리 한문교육을 국어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과소평가한 데 있었다. 한문독본이 한자와 한문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전수하기 위한 교재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문독본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 한문독본을 단순히 국어과 한문교육의 보조교재로 단순 취급할 수 없는 일이다. 전시 한문독본이 한자 또는 한문 지식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면화하는 국민교육의 주요한 텍스트로 기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난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이 국가주의를 심화시키는 정훈교육독본으로 널리 유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어과 부독본으로 활용된 한문독본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한문독본은 ‘전시독본’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 국어과 한문교과서로 사용된 매체다. 이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냉전적 반공주의를 전면적으로 강조하는 교육적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그만큼 한문독본은 문학독본과 더불어

3)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임상석, 『조선총독부 중등교육용 조선어급한문독본의 조선어 인식: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의 번역과 문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7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185-208쪽; 박치범, 『日帝強占期 普通學校 『朝鮮語及漢文讀本』의 性格: 第一次 教育令期 四學年 教科書의 ‘練習’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49-476쪽; 노관범, 『대한제국 말기 동아시아 전통 한문의 근대적 轉有-朴殷植의 『高等漢文讀本』을 中心으로』, 『한국문화』 64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119-155쪽; 입순영,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中等教育朝鮮語及漢文讀本)』과 타(他) 독본과의 비교 연구-『時文讀本』, 『中等朝鮮語作文』, 『文藝讀本』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35-160쪽.

어 전시교육 부문에 작동한 국가주의의 실상과 지향점을 오롯이 파악할 수 있는 매체라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현황과 성격을 밝히고, 『常用漢字讀本』을 중심으로 그것의 체재와 매체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아직 그 실재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았던 한문독본을 새롭게 발굴하여 국어교육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

근대 이전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은 특히 문자 언어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학습 활동의 기초였다. 『千字文』과 『類合』을 교재로 삼아 언어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자와 한자어의 조어 원리, 장구(章句) 구성 원리를 방식을 학습하도록 했으며, 『啓蒙篇』·『童蒙先習』·『擊蒙要訣』·『明心寶鑑』 등을 통해 한문 독해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학문에 입문하기 이전에 선행해야 하는 수신(修身)의 실천적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였다. 향교와 서원에서는 『小學』을 통해 수신을 실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학습하도록 했다. 『十八史略』·『通鑑』과 사서(四書)·삼경(三經)을 학습함으로써 대학 입학에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대학 입학 이전의 교육과정은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⁵⁾

갑오개혁은 이러한 근대이전 교육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

4)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앞의 책, 426쪽.

5) 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1992, 2-3쪽 참조. 이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다.

기가 되었다. 새로운 문물이 급속하게 밀려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했다. 더욱이 계급을 타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공식 문어도 한문으로 고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 한문이 문어이던 시대의 지식인들이 신문물의 소개와 도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명은 국한문을 매개로 소개되고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학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소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한자와 한문은 여전히 모든 언어생활에 기초적인 교육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잃은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특히 나라잃은 시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본어 교과와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는데, 한자와 한문은 중요한 교과 교육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신학제 수립기(1894~1904)의 ‘國語及漢文’ 교과가 학교령 시행기(1906.9.1.~1909.8.31, 1909.9.1~1911.10.31)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제1차(1911.11.1. ~ 1922.3.31),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4.1~1938.3.31)에도 ‘朝鮮語及漢文’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해당 교과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해당 시기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차(1938.4.1.~1943.3.31),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4.1~1945.8.15)에 이르면 조선어 과목이 수의과목으로 바뀌면서 한자와 한문은 ‘國語(日本語)及漢文’ 교과의 교육 내용으로만 남게 된다. ‘國語及漢文’은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부터 유지되었던 교과였다. 한자와 한문에 대한 해독 능력은 일본어를 매개로 하는 언어생활에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國語及漢文’에서 학습해야 할 필수 한자는 1,300~1,500자로 정해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육 목표가 황국신민 양성으로 전일화되면서 조선어 과목은 ‘수의과목’으로 바뀌었으며, 한자와 한문 교육은 물론 조선어 교육도 공교육의 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광복 후 과도기 교육과정(1945.8.15~1946.9) 시기 국민 교육에서 가장

급선무는 국어 교육이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조선어학회였다. 국어 교육은 한글 문맹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⁶⁾ 모든 교과서는 한자가 괄호 안에 병기되기도 하였지만 한글 표기가 원칙이었다. 한국어는 민족어이고 한글은 민족어를 표기하는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자와 한문 독해 능력이 국어 생활에 기초가 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글들이 모두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 교육에서 한자와 한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 때문에 교수요목기(1946.9.~1954.8)에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던 것이다.

1,000자는 근대 이전 초학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배웠던 천자문의 글자수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1,000자에 포함된 글자는 천자문에 포함된 글자 가운데 544자만 선정하고 456자는 새로 선정하였다. 천자문 가운데 456자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로 대체한 것이다. 상용한자는 곧 교육용 한자라 할 수 있다.

상용한자 1,000자 지정은 한자와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모종의 합의 결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자와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와 한자어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면 한문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반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한국어 문자생활이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지

6) 광복기는 말글살이의 혼란 속에서 국가적 지위로 올라선 국어의 회복과 재구성, 국어교육이 가장 긴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어교과서와 문학독본은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새롭게 상상된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용 교재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주요매체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욱,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1)』,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 155-194쪽을 참고할 것.

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자(어) 사용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현대적 보통 상식”을 얻는 데에도 1,000자의 한자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000자의 한자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문교부 인사의 ‘추천’이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재들이 제작·출판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어생활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글들은 상용한자 지정에 함축된 한자 사용 ‘제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광복 이전의 특성에서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공교육 경험자들은 ‘朝鮮語及漢文’이나 ‘國語及漢文’ 교과를 통해, 사교육(가학이나 서당 등) 경험자들은 천자문에서 사서삼경까지 한문을 매개로 글쓰기를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몸에 밴 언어 습관을 바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발간된 한문교재는 문교부의 한자제한 방침을 넘나들며 국한문 언어생활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교육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기에 발행된 대표적인 한문독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 ①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1~4, 서울: 동방문화사/서울: 동국문화사, 1947.8~1951.9.
- ② 김능근, 『高等漢文敎本』 1~3, 대구: 대영당/서울: 백영사, 1950.4~1952.3.
- ③ 김득초 엮음, 『新修中等漢文』 1~4, 서울: 탐구당, 1950.5~1953.3.
- ④ 민태식 엮음, 『中等漢文』 1~4,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0.4~1952.3.
- ⑤ 백남규, 『한자교본(새 천자)』,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1.12.
- ⑥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1~3권,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7) 이 외에도 임창순이 발행한 『中等漢文讀本』(남선문화사, 1946)과 김춘동의 『精選高等漢文讀本』(삼성사, 1947.8) 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문독본이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은 광복기 문교부검정(1949.7.25)을 거쳐 전중기⁸⁾에도 중등학교 국어과 한문 교과서로 사용된 독본이다. 광복기 동방문화사에서 발행되었으나 1950년 5월 출판사를 바꿔 동국문화사에서 판을 거듭하여 간행되었다. 『例言』에서 알 수 있듯이, 類語, 文法, 造句 등의 현대중국인 한문 교수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 이후에 만든 한문문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학 경전에서 발췌한 글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이 독본은 당시 발행되었던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민족 자존심과 애국심의 고취,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1권의 여러 과와 제3권 46과 ‘愛祖國’, 4권 13과 ‘論國民之愛國’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습문제는 주로 한문을 국어로 옮기는 문제와 우리말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51년 9월 13판까지 발행된 제1권을 보면, ‘自由與平等’, ‘自由’, ‘自由與德行’ 등 3과에 걸쳐 자유와 관련된 단원(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장에 현토(懸吐)하지 않고 과제로 제시하였다.

② 또한 문교부 검정을 통과하여 국어과 한문교과서로 사용된 독본이다. 1950년 4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51년 9월 재판, 1953년 3월에 3판을 찍었을 만큼 당시 국어과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학습자료로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당시 중등학교(국립체신학교, 흥국공업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김득초가 편찬했으며, 문교부 검정(1951.8.12.)을 거쳐 ‘중등학교 국어과 한문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초판 발행 이후 1955년 2월에는 6판을 발행했다. 이 독본은 한자 획순에서부터 단문 독해까지 나라잃은시대 『朝鮮語及漢文』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과(課)별 익힘 한자(음, 훈)를 별도로 제시

8)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기부터 1954년에 이르는 시기를 ‘한국전쟁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단정 수립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을 전전기(戰前期),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중기(戰中期), 문학교도가 안정되던 1954년 후반까지를 편의상 전후기(戰後期)라 부르려고 한다.

하고 있다. 특히 제1권은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국가 정체성 인식 교육의 의도를 적극 반영하여 독본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愛祖國이라.”와 “國民은 宜當遵守國法이니라.”(13쪽), “國民은 有三大義務하나니 一曰徵兵이오 二曰納稅오 三曰教育이니라.”(18쪽), “三一節 制憲節 光復節 開天節 此四節은 爲我國四大慶節也니 吾等은 應當盡心慶祝此節이니라.”(四大節, 21쪽) 등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권 이하는 이러한 측면이 약화되는데, 訓民正音序(2권 제11과) 등에서 보이듯 민족 자존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3권에는 주로 유학경전에서 발췌한 글을, 4권에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에서 발췌한 글을 두루 수록하였다. 문장의 경우에는 “主意衛生하고 鍛鍊身體면 可以保存健康이니라. 健康之福은 貴於財寶니라.”와 같이 우리말 토(吐)를 붙이고 있으며, 대체로 근대 이후에 만든 한문문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습문제는 ①과 동일하게 한문을 국어로 옮기는 문제와 우리말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는 당시 충남대 문리과대학 교수로 일했던 민태식이 엮은 독본이다. 1950년 5월 20일 문교부 검정을 마쳤다. 『例言』에서 알 수 있듯이, “現實情과 漢字制限의 方針에 따라서 어려운 漢字는 可能한 限 이를 制約”하여 교재를 구성하였다. 현토는 하지 않고, 單字/句/文의 뜻풀이와 文法을 설명하고 있으며, 품사와 표점 해설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말로 풀이하는 문제와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문제를 연습문제로 제시하여 ①, ③과 비슷한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胡適(1891~1962)의 名家日記抄(제4권 41과 ‘西方의 信義’)에서 드러나듯 근대 이후 한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중기에 발행된 다른 독본들과 달리 국가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⑤는 당시 한자제한의 분위기 속에서 문교부가 선정한 한자를 바탕으로 엮은 독본이다. 저자 일석(一石) 백남규⁹⁾는 한자제한촉진운동의 중심

에 서 있었던 인물로, 당시 문교부 선정 상용한자를 보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 1951년 12월 초판 발행 이후 불과 5개월 뒤인 1952년 4월 12판을 발행했을 정도로, 이 시기 대중들이 가장 널리 사용한 독본으로 보인다. 이 독본의 속지에 수록된 당시 문교부장관 백낙준의 추천사는 이 책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백일석 선생의 역작인(文教選字만으로 지은 글) 『한자교본(새 천자)』가 발간되었기 이에 추천하오니 널리 쓰이게 되도록 盡力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目下鄉村에서 傳習하는 千年古腐의 殘物로서 現下 민주주의교육에 不適當한 “옛 千字”를 對敵함.
2. 저작이 간명하고 순서가 정연하여 가장 상식적이며 민주적이며 애국적임.
3. 초·중등교육 및 일반 청소년 讀物에 적당함.

이 독본은 새 천자를 크게 상(544자)·하(456자)로 분할하고, 상은 다시 갑(240자)과 을(304)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甲은 序言(128자)·天門(48자)·地門(64자), 乙은 人門(인륜 64자, 인체 64자, 생활 96자)·生物(동물 32자, 식물 48자)로, 하에 해당하는 丙은 政法(176자)·經濟(64자)·教育(96자)·사회(80자)·結辭(40자)로 구성하여 총 10개의 장에 걸쳐 1000자를 학습하도록 했다. 국민학교에서는 갑·을·병을 4·5·6학년

9) 一石(또는 한돌) 백남규는 1891년 전북 고창군에서 나서 1956년 심장마비로 돌아갔다. 1919년 서울 중동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중앙고등보통학교, 동광고등보통학교, 정신여학교, 동덕여고, 남성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일했다. 그는 교육자이자 농촌계몽활동에 힘쓴 사회운동가였으며, 한국에스페란토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1929년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算數唱歌』(이문당)를 집필했으며, 시조와 한시를 여러 남겼다. 최은숙, 『일석 백남규 선생』,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6. ; 『백남규씨 별세-21일 심장마비로』, 『동아일보』, 1956.11.24, 3면.

10) 그는 1952년 11월 25일부터 3주간 9회에 걸쳐 화·목·토요일 오전 8시 10분부터 15분간 한자 해설 방송을 하기도 했다. 『상용한자 해설방송 오늘부터 3주간』, 『동아일보』, 1952.11.25, 2면.

에, 중등학교에서는 상하를 1~2학기에, 성인교육에서는 전편을 1년 중 농한기에 배우도록 했다.¹¹⁾ 편자는 제한된 글자에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글자들이 늘 많이 쓰는 것, 뜻이 있게 짜여 있는 것”¹²⁾을 이 책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만큼 이 책은 1,000자로 제한한 문교부의 한자교육 정책¹³⁾을 가장 잘 반영한 교재로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은 문교부에서 선정·공포한 상용한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연구회¹⁴⁾에서 발행한 독본이다. 단순히 낱말의 한자로 제시하지 않고, “글을 읽는 동안에 글의 내용을 배우는 한편 한자로 쓴 말을 공부할 수 있게”¹⁵⁾ 서사나 설명문에 포함된 한자어로 한자 학습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독본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한자교본(새 천자)』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글자인데도 문교부에서 발표한 상용한자에서 제외된 것을 포함하여 한자교육의 수월성을 드높이고 있다. 이 독본의 발간 취지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3권의 제4과 『漢字와 國語』에서 잘 드러나 있다.¹⁶⁾ ⑤가 전통적인

11) 백남규, 『새 천자 분류표』, 『한자교본(새 천자)』,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4, 2쪽.

12) 백남규, 『첫 말씀』, 위의 책, 3쪽.

13) 문교부가 과도조치로 상용한자 천자를 골라 국민학교 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를 교수하도록 결정한 것은 1951년 4월이었다. 『常用千字를 골라 國民校 漢字 使用』, 『동아일보』, 1951.4.28, 2면. 그러다가 1952년 2월 13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자를 천자 이내로 제한하여 교육시키기로 하였는데, 1학년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먼저 국문에 정통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4학년 부터 한자교육-千字로 제한 실시』, 『동아일보』, 1952.2.14, 2면.

14) 1953년 10월 31일 선산교육구 산동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생활교육에서 경남 장학사 황필선의 강화가 농촌교육발전에 유익했다는 기사를 통해 이 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生活教育研究會』, 『동아일보』, 1953.11.9, 2면. 현재 이 단체의 실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전중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단체는 문교부의 외곽에서 전시문교를 뒷받침한 정훈교육단체로 여겨진다. 조직 이름에서 드러나듯 교육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15) 생활교육연구회, 『머리말』,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1쪽.

천자문의 체재를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면, ⑥은 상용한자 천자에 생활한자를 포함시켜 초학자의 한자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전시 국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다.

『常用漢字讀本』 차례		
권 1	권 2	권 3
一. 우리 집	1. 國慶日	1. 大韓民國
1. 一線에서 오신 아저씨	2. 우리나라의 地下資源	2. 國民의 義務
2. 아저씨 歡迎會	3. 科學의 發達	3. 宗教와 迷信
3. 아저씨 배웅	4. 傳染病과 豫防注射	4. 漢字와 國語
二. 우리 學校	5. 共產侵略과 勇감한 國軍	5. 便紙
1. 우리 班	6. 民主主義와 自由	6. 卒業 後의 方面
2. 우리 先生님		*附錄
3. 學用品을 아껴 쓰자		
4. 우리 班 공부		
5. 일하기		
三. 우리 고장		
1. 繁華한 거리		
2. 稅金을 바치자		
3. 民衆의 지팡이		
4. 便紙 부치기		
5. 銀行		
四. 우리나라		

위의 차례에서 알 수 있듯이, ⑥은 국가주의에 충실한 국민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발간된 독본 가운데 전시교육의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독본이라 할 만하다. 즉, 신학제 수립기의 한문독본이 황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조선교육령 시기의 한문독

16) “우리가 漢字를 안 쓰고 우리 글을 써야 할 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갑자기 이것을 全的으로 쓰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混亂도 적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生活 環境에 漢字가 如前히 쓰이고 있는 以上, 우리는 이 過渡期에 있어서 우리의 生活를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不得已 恒常 쓰이는 基本 漢字만은 익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3,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6, 44-45쪽.

본이 덕성 함양과 황국신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적절한 교재였다면, 한국 전쟁기 『常用漢字讀本』이야말로 국가주의와 전시생활을 강조한 전시교육의 방향을 가장 잘 담지하고 있는 텍스트인 셈이다. 물론 ①~⑤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념은 일부 텍스트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뿐이다. 그에 비하면 『常用漢字讀本』은 국가주의에 충실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적으로 형상화하여 전개하면서 전시상황에서도 ‘국민’으로서 필수적인 활동과 의무 수행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어휘를 위주로 하여 한자와 한자어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⑥은 국가주의를 텍스트 전면(全面)에 수용한 전시교육 텍스트라 할 수 있다.

3. 『상용한자독본』의 매체 특성과 국가주의

1951년 2월 16일 문교부장관 백낙준은 『戰時下 教育特別措置要綱』을 발표하여 전시교육의 핵심을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戰局과 국제 집단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道義教育과 一人一技教育(기술교육), 國防教育을 전시교육의 방침으로 삼았다.¹⁷⁾ 도의교육이 국토건설과 문화건설, 교육재건의 선행 조건으로서 인간 재건을 실현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기술교육은 국가 재건과 기술 습득 과정에서 발현되는 정신 수양에 교육적 의미를 두고 있었다. 특히 국방교육은 국방사상을 행동화하는 데 있었다. 1951년 3월 전시독본을 발간하고¹⁸⁾, 교사들에게는 『戰時學習指導要領』을 제공한 것

17) 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文教史』,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130-131쪽.

18) ‘전시생활’ 9종, ‘전시독본’ 3종을 포함한 전시독본의 발간배경,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앞의 책, 431-446쪽을 참고할 것.

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는 백낙준에 이어 1952년 10월 3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김법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전시교육체제에서 전시독본의 발간과 유통은 전시 국민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용한자독본』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한 매체다. 이 독본의 발간은 백남규의 『한자교본(새 천자)』과 나란히 한자 교육이 한국문화발전에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상용한자 1천자를 선정하여 수업을 실시¹⁹⁾하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권의 나오는 한자(한자말) 수는 1권 279자(281자), 2권 288자(455자), 3권 322자(512자)다.²⁰⁾ 생활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상용한자독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 시기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독본이 지식과 교양의 전수라는 역할을 넘어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보면, 『상용한자독본』 또한 동아시아 한문교육의 전통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시 사상훈련의 주요한 매체로 기능했다. 이는 편찬자가 독본을 엮으면서 고려한 교재 내용 선정과 학습방법 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교재의 내용은 시국 인식, 국민 상식 및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하였다.
2. 한자 학습은 낱자로서의 학습은 피하고, 한자말로서 학습하게 하였다.
3. 새로 나온 한자말은 각 페이지마다 밑에 따로 적어 놓았다.
4. 연습문제는 그 과에서 나온 한자를 어느 정도로 학습하였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습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되풀이하여 교재를 읽어 한자를 눈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앞의 책, 136쪽.

20) 각주 15) 참조.

“시국 인식, 국민 상식,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1권의 차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집-우리 학교-우리 고장-우리나라”로 논의를 확대해 가면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의 내면화, 상식의 확충, 전시 국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 파출소, 우체국, 은행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기관에 대한 소개, 국회나 정부기관의 조직 구성의 특성, 국민의 의무, 바람직한 종교생활에 대한 권고, 과학발전의 역사, 문명인의 자세, 위생의 중요성 등을 2~3권에 걸쳐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용한자독본』은 전시 후방사회에서 요청되던 치안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국민의 의무, 국군 위문 등의 긴급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생활』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기획된 매체라 할 수 있다. 특히 2권의 5단원 『共產侵略과 용감한 國軍』, 6단원 『民主主義와 自由』는 이 시기 전시담론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세계 민주국가 우방은 “우리나라의 참다운 벗”(55쪽)으로 묘사되는 반면, “세계를 제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支配 하려는 소련의 野望에 어리석게도 꼬박 利用 當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덤벼든” “北韓과 中國의 共產黨들”은 “괴물 같은 敵”(38쪽)이거나 “짐승과 같은 共產軍”(40쪽)으로 격하된다. 이때 “熱熱한 적개심과 抗爭心”에 기반한 결전담론과 승전의지는 이 시기 반공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의 국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民主主義와 自由』는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사상전의 핵심 내용이다. 이 또한 전시생활 2-2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의 2단원 『유엔은 우리를 돕는다』와 전시생활 3-1 『우리나라와 국제연합』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아래에 인용한 『상용한자독본』 3권의 6단원 『卒業 後의 方面』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어린이의 졸업 후 진로 모색(영일: 농업, 대식: 수산업, 복남: 공업, 감동: 상업)을 통한 전후 국가재건의 방향은 국가주의의 시각이 강조된 결과로 읽힌다.

- ① 자기 한 사람은 희생이 될지라도, 周圍의 많은 사람을 救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은 文明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道德心이라고 하겠습니다.²¹⁾
- ② 우리는 우리나라 産業의 재건과 復興을 爲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일하여야 하며, 勤勞를 通하여, 나라에 忠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²²⁾

그리고 서사와 설명 방식을 통한 한자어 학습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새로운 한자어의 음을 각 쪽의 밑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점, 전시독본과는 다르게 ‘연습문제’를 두어 각 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독본의 체제를 구성한 점, 편지(문안, 초청) 쓰는 법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은 이 시기 『常用漢字讀本』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이 독본은 날자나 한자어 중심의 전통적인 천자문이나 당시 가장 폭넓게 유통된 백남규의 한자교본 체제를 따르지 않고 서사와 설명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물론 학습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서 서사 양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한 것은 『常用漢字讀本』만의 특징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독본은 근대 계몽기 이후 발간된 한문독본의 서술 방식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아마도 생활교육연구회 회원들이 주로 식민지 교육의 주된 실질적인 담당자이거나 수혜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 ① 편지는, 言語를, 대신 文字로써, 의사를, 通하는, 것이올시다.

21) 생활교육연구회, 「四. 傳染病과 豫防注射」, 『常用漢字讀本』 2,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31쪽.

22) 생활교육연구회, 「二. 國民의 義務」, 『常用漢字讀本』 3,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26-27쪽.

丁吉이, 一日은, 그, 父親게, 엿자오되,
 이, 편지는, 어디에, 보내시는, 것이온잇가.
 (父親) 이것은, 汝의, 從兄엑, 보내는, 것이다, 汝도, 편지를, 써서, 보내여라.
 (丁吉) 아즉, 一番도, 쓰어보지, 못헛얏는이다.
 (父親) 무엇이던지, 汝의, 생각을, 쓰는 것이, 도흐니, 아모것이나, 써, 보내여
 라.
 (丁吉) 무엇을, 쓰면, 도켓습는 잇가, 알수가, 업는이다.
 (父親) 그러면, 昨夜에, 汝가, 감기로, 대단히, 알어서, 지금도, 낫지, 못헛얏다
 고, 쓰어라. (...중 략...)
 (父親) 참, 듯타, 그러면,

從兄主前 上書

이동안에,
 귀운이, 안녕 헛시온잇가, 從兄는, 母主의,
 病患이, 꽤히, 나으셨시니, 매우, 기부오이다.

光武, 十年, 五月, 二日, 從兄 丁吉 上書

이렇게, 쓰어라.

(丁吉) 그러케, 쓰겟사오니, 父親의, 편지속에 한테너어, 보내시옵소서.²³⁾

② 入學式은 열時半에 끝났다. 돌아오는 거름에, 아버지吩咐대로 三清洞아
 저셋宅에 들렀다. 마주나오신 아주머니께서, 『에구, 잇브기도한 高等普通學
 校生徒,』 하시고 웃으신다. 從弟들이 房안에서 튀어나온다. 나는 그만 여덟순
 생각이났다. 『오늘이야 엿덜라구, 좀 놀다가點心이나 먹고 가거라.』 하시고, 아
 주머니께서 挽留하시는 것을, 앞지도 안코발을 돌이켰다. 『그러면 이것이나 入
 學記念으로,』 하시고, 조의로 쓴 것 하나를 내 주셨다. 그러케 躁急히 굴지 안아도
 조왓슬터이지마는, 엿전지어서 집에 가고 싶었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冊肆에 가서 教科書를 사오셨슬터인즉, 그것도어서 보고 싶었든 것이다.²⁴⁾

③ 英—이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警察이 하고 있는 일을 여쭙어 보
 았다.

“軍隊는 外國의 침략을 막기 爲하여 싸우고 있지만, 警察은 國民들이

23) 7과 「편지」, 『初等小學』 4, 大韓國民教育會, 1906, 7-10쪽.

24) 1과 「入學」, 『中等教育 朝鮮語及漢文讀本』 1, 朝鮮總督府, 1933, 4-5쪽.

便安히 잘 살게 하기 爲하여 나라 안을 지키고 있다. 우리 동네를 맡은 곳은 바로 네거리 옆에 있는 派出所다. (...중 략...)

“아아, 그렇기 때문에 派出所 문 앞에 ‘우리는 民衆의 지팡이’라고 써어 있군요?”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警察에 協力하여 우리 동네를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동네를 잘 지키는 것도 結局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警察은 언제나 民衆에게 親切히 對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²⁵⁾

신학제 수립기 교과용 도서인 인용문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 개인이나 집단(‘우리’)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도 하고 서사 속에 편지글을 삽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교육령 시기에 발간된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1~2(朝鮮總督府, 1923)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가령, 봄~겨울까지 일상생활 단면을 학습자 개인(가령, 龍吉이 鳳吉이 형제)이나 집단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해 편찬된 『新編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1(朝鮮總督府, 1924)의 제1단원 ‘新入學’에서도 학습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학업에 임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를 다루기 있는 것이다. ② 또한 마찬가지로. 이처럼 근대 이후 한문독본이 수신을 함양하고 국가주의에 충실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와 편지 양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가주의를 효과적으로 내면화하는 동시에 한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서사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常用漢字讀本』 1권은 4단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일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정과 학교 조직의 특성, 위문담론, 물자절약, 국산품 사용,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서사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3권의 6

25) 생활교육연구회, 「民衆의 지팡이」,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39-41쪽.

단원 『卒業 後의 方面』 또한 영일, 대식, 복남, 갑동의 국가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반면, 2권을 비롯한 나머지 단원은 모두 국회의 기능, 국민의 의무, 한자공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지리, 지하자원, 과학의 중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常用漢字讀本』은 이 시기에 발간된 다른 한문독본들과는 달리 설명과 서사 방식을 활용하여 전시체제에서 국민이 지녀야 할 덕목과 지식을 전달하고 사상 학습을 수행한 텍스트인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서사나 설명의 방식은 전중기 ‘전시독본’의 체재와 내용을 고스란히 답습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단원마다 본문 내용을 잘 드러내는 삽화를 신고 있다는 점 또한 전시독본과 『常用漢字讀本』의 구성적 특징이다.

① “자,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목적도 잘 알았을 것이고,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진 이 전쟁을 하루라도 속히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 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선생님은, 펄 긴장된 말씨로 이렇게 물으시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중 략...)

“예. 저는 저..... 작년 여름, 대구로 피란했을 적에 동네 어른들과 같이 군용도로를 고치러 나간 일이 있었고, 서울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집안 식구와 같이 위문 편지를 써서 내었습니다.”²⁶⁾

② 오늘 어린이송에서는 一線에서 싸우고 계신 國軍 慰問에 對하여 의론하기로 하였다. (...중 략...) 英一이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나는 그럼 이번에, 우리 아저씨와 같이 一線에서 싸우고 계신 國軍 아저씨들에게 慰問 便紙를 써 보내겠습니다.”

또 銀順이도 손을 들고 일어서서,

26) 『영길이의 싸우는 일기-1월 13일 金요일』, 전시생활 3-3 『우리도 싸운다』, 교학도서주식회사, 1951.3, 5-7쪽.

“우리 여자들은 病들고 다치신 軍人 아저씨들에게 손수건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²⁷⁾

이 시기 전시교육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바쳐졌다. 전시문교의 핵심은 ‘국민’ 형성과 동원 담론에 있었다. 전우위문문집 『勝利를 向하여』(전국공산주의타도연맹문화부, 1951.5)와 『一線軍警慰問 꽃다발 제1집』(군경위문수첩간행위원회, 1951.4)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위문편지와 위문품 보내기를 교육 내용으로 삼은 까닭은 전시 원호체제의 확립을 통한 국민 또는 국가 형성을 전시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주의의 기획 아래 발간된 전시독본은 『常用漢字讀本』을 비롯한 『반공독본』이나 『반공교본』, 『애국생활』, 『애국독본』 등의 유사한 독본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원천 텍스트로서 기능하였던 셈이다.

넷째, 전시독본과 달리 ‘연습문제’를 각 단원마다 두어 한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습문제는 주로 빈칸에 글자 넣기, 한자어와 독음을 연결하기, 한자어를 한국어로 고쳐 쓰기, 한자어를 읽고 같은 글자에 ○표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편찬자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자 쓰거나 문법, 구문 해석 같은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주로 암기력을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한문독본의 수준과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연습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이 시기 한문교육이 상식 확충이나 국민 계몽, 생활 한자를 습득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찬자의 의도가 투사된 연습문제는 각 단원의 주제의식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셈이다.

27) 생활교육연구회, 『二. 우리 學校-1. 우리 班』,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16-17쪽.

3. 다음 한자의 번호를 아래 글의 () 속에 맞도록 써 넣어라.

(1)熱心 (2)安心 (3)簡單

ㄱ. ()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ㄴ.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國軍과 유엔軍의 덕이다.

ㄷ. 우리는 ()히 공부하여야 한다.²⁸⁾

1. 다음 한자의 번호를 아래 글의 () 속에 맞도록 써 넣어라.

(1)無窮花 (2)大韓民國 (3)檀君 (4)單一 (5)團結

ㄱ. 우리나라는 ()께서 세워 주신 나라입니다.

ㄴ. 우리는 ()國民입니다.

ㄷ. 우리는 굳게 ()하여 共產軍을 쳐몰아내야 합니다.

ㄹ. ()는 우리나라의 나라 꽃입니다.²⁹⁾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충성, 전선 상황, 전시생활 지침이 문제를 통해 단원학습과 연계되어 전달된다. 이러한 측면은 학교제도 안팎에서 국민 형성과 민족 정체성의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제시한 차례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은 전시 사상 훈련의 중요한 지침과 내용,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민족주의 의식을 강하게 담고 있는 교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마무리

사상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교육에서 기존의 문교행정, 교육 목적과 방법, 교과서제도가 재편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중기 매체 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

28) 생활교육연구회, 『二. 우리 學校-5. 일하기』 ‘연습문제 (1)’, 위의 책, 30쪽.

29) 생활교육연구회, 『四. 우리나라』 ‘연습문제 (2)’, 위의 책, 70쪽.

며, 특히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의 발행은 그 영향이 직접적이었다. 전중기 국어교과서 못지않게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문학독본과 한문독본들이 폭넓게 발간되었다는 점은 전시 국어교육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시기는 대중의 지적 교양을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성격의 독본이 생산·유통되기도 했지만,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매체의 독본화가 진행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정 분야의 지식과 교양의 습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나아가 후방 사회에서 사상 훈련과 시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훈독본의 발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의 발간 현황과 성격을 고찰하고 국어과 한문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재로 사용된 『常用漢字讀本』의 매체 특성과 독본에 깃든 국가주의 담론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전쟁기에 간행된 다양한 한문독본의 매체 기반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제도와 한문독본의 관련성, 한문독본과 국가주의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한문독본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문교부는 상용한자 1,000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전시문교행정의 방침에 부응하여 광복기부터 발행되어 오던 다양한 종류의 한문독본이 생산·재생되면서 폭넓게 유통되었다. 문교부의 상용한자는 곧 교육용 한자였으며, 언어생활에서 한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한문독본은 한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필수 매체로 기능하였다. 때문에 문교부 인사의 ‘추천’이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한자와 한문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재들이 거듭 제작·출판되는 것은 자유스러운 현상이었다. 이 시기 글쓰기가 확인가 한문독본은 6종 19책에 이르렀으며, 전중기 동안 판을 거듭하면서 발행되었다. 이 독본들은 다소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전시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수용하고 었다.

둘째, 한국전쟁기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생활교육 연구회에서 발간한 『常用漢字讀本』 1~3의 매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독본은 전통적인 한문교육의 성격을 넘어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학습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훈련의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1951년 3월 발간된 전시독본의 편찬 의도와 내용 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전시 국민의 의무나 국군 위문, 승전의지의 고취, 국가재건의 방향 모색 등의 당대 긴급 현안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서사와 설명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은 이 시기의 다른 한문독본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 ‘연습문제’를 각 단원마다 두어 한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常用漢字讀本』를 통해 전시 국어교육에서 한문독본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과 당시 국어과 한문교육의 실체, 그리고 한문독본의 존재방식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전쟁기 한문독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한문교육의 전통에서 한문독본의 위상 변화를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었으며, 전시 국어교육에서 한문교육의 지향점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일차자료

-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1, 서울: 동국문화사, 1951.9. 13판. (1950.5. 초판)
-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1, 서울: 동방문화사, 1949.7.
-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2, 서울: 동방문화사, 1949.9.
-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3, 서울: 동방문화사, 1948.7. 재판. (1947.8. 초판)
-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3, 서울: 동방문화사, 1950.4. (1947.8. 초판)
- 김경탁 엮음, 『中等漢文讀本』 4, 서울: 동방문화사, 1948.7.
- 김능근, 『高等漢文教本』 1, 대구: 대영당, 1952.3. 3판. (1950.4. 초판/ 1951. 9. 재판)
- 김능근, 『高等漢文教本』 2, 서울: 백영사, 1952.3. 3판. (1950.4. 초판/ 1951. 9. 재판)
- 김능근, 『高等漢文教本』 3, 서울: 백영사, 1952.3. 3판. (1950.4. 초판/ 1951. 9. 재판)
- 김득초 엮음, 『新修中等漢文』 1, 서울: 탐구당, 1953.3. 4판. (1950.5. 초판 /1951.5. 재판/1952.3. 3판)
- 김득초 엮음, 『新修中等漢文』 2, 서울: 탐구당, 1951.8. 재판. (1950.5. 초판)
- 김득초 엮음, 『新修中等漢文』 3, 서울: 탐구당, 1955.2. 6판. (1950.5. 초판)
- 김득초 엮음, 『新修中等漢文』 4, 서울: 탐구당, 1951.8. 재판. (1950.5. 초판)
- 김춘동, 『精選高等漢文讀本』, 삼성사, 1947.8.
- 민태식 엮음, 『中等漢文』 1,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3. 재판. (1950. 4. 초판)
- 민태식 엮음, 『中等漢文』 2,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3. 재판. (1950. 4. 초판)

- 민태식 엮음, 『中等漢文』 3,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0.4. 초판.
민태식 엮음, 『中等漢文』 4,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0.4. 초판.
백남규, 『한자교본(새 천자)』, 금릉도서주식회사, 1951.12.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1,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10.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2,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10.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3, 서울: 금릉도서주식회사, 1952.6.
전시생활 1-1 『비행기』(국민학교 1·2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1-2 『탱크』(국민학교 1·2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1-3 『군함』(국민학교 1·2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2-1 『싸우는 우리나라』(국민학교 3·4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2-2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국민학교 3·4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2-3 『씩씩한 우리 겨레』(국민학교 3·4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3-1 『우리나라와 국제연합』(국민학교 5·6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3-2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 왔나?』(국민학교 5·6학
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3-3 『우리도 싸운다』(국민학교 5·6학년), 문교부, 1951.3.

2. 이차자료

- 김동훈,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3.
김용일, 『미군정하의 교육정책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김진기 외, 『반공주의와 한국 문학의 근대적 동학 I』, 한울아카데미, 2008.
노관범, 「대한제국 말기 동아시아 전통 한문의 근대적 轉有-朴殷植의 『高等漢文讀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4집, 서울대 규장각 한
국학연구원, 2013, 119-155쪽.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문교부, 『文教要覽』, 대한교육연합회, 1956.

-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9.
- 박용찬, 『한국 현대사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 _____, 『한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 주위의 시선으로의 이동』,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3, 223-253쪽.
- 박치범, 『日帝強占期 普通學校 『朝鮮語及漢文讀本』의 性格: 第一次 教育令期 四學年 教科書의 ‘練習’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49-476쪽.
- 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1992.
- 이순옥,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1)』,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 155-194쪽.
- _____,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한국문학논총』 제66집, 한국문학회, 2014, 361-391쪽.
- _____,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한국문학회, 2011, 423-452쪽.
- _____,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과 국민형성의 담론』, 『작가와 사회』 39호, 산지니, 2010, 22-37쪽.
- 이치석, 『전쟁과 학교』, 삼인, 2005.
- 임상석, 『조선총독부 중등교육용 조선어급한문독본의 조선어 인식: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의 번역과 문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7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185-208쪽.
- 임순영,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中等教育朝鮮語及漢文讀本)』과 타(他) 독본과의 비교 연구-『時文讀本』, 『中等朝鮮語作文』, 『文藝讀本』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135-160쪽.
- 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文教史』,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韓國教育十年史』, 서울:풍문사, 1960.

<Abstract>

A Study on a Reading Book for Learning
Classical Chinese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 Focused on *Sangyong Hanja Dokbon*

Lee, Soon-wook · Yim, Ju-tak

The goal of this thesis lies in elucidating the identity of *Sangyong Hanja Dokbon* 常用漢字讀本 (Reading book for learning Classical Chinese) which had used as a supportive learning material in clas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As results, we analyze three notable characteristics as follows;

One is that the book was made for students to more easily learn “Ten-hundred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for common use 常用漢字 1,000字” which was appointed by educational authorities in the times. This characteristic was, of course, not of its own since it was common to other books made for the same goal. But the others are so deferent from other books; that it was based on nationalism which all the authorities of Korean State had tried to put in the people’s minds; that a little texts of it was composed of pieces of the life story of a fictitious character who played modeling roles of the people in a nation-state.

Those characteristics were supposed to be effective for each of real

or potential readers of it not only to learn the appointed letters and use them in their daily lives but also to take principles of life as one of the people of a nation-state. We note that such characteristics have still had an effect on most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course, it should be more clearly examined in succeeding studies.

Key Words : Korean War, reading book, Classical Chinese, *Sangyong Hanja Dokbon*, Korean language education, Nationalism.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

